

공존의 시선으로 엮은 예술의 향로

내일까지 2025 미로예술인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광주의 역사와 흔적,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은 작품들이 모였다. 광주 동구를 상징하는 장소와 기억을 예술로 풀어낸 이번 전시에는 지역 작가뿐 아

‘2025 미로예술인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공존의 지도 : 하나의 향로, 여러 갈래의 길’이 오는 7일까지 미로센터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전시는 동구가 주최하고 미로센터·예술공간

지난 5월부터 미로센터에 입주해 작업을 이어온 강미미, 김자이, 이세현 작가와 10월 광주를 방문해 총장22에 머물며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탐색한 인도네시아 작가 아낭 샵토도, 아페 누르까지 총 다섯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각자의 예술 세계를 ‘공존’이라는 주제 아래 엮어낸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감각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지점을 드러낸다.

특히 인도네시아 작가들은 레지던시 기간 동안 5·18기록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5·18기념공원, (주)국군병원, 구도청, 5·18구묘역을 찾아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체감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광주시립미술관, 예술의거리 등 예술현장을 두루 살피며 도시의 예술적 맥락을 체험했다.

광주·인도네시아 작가 5인

역사·삶의 조각 엮어내

예술공간 집에서는 협업 작업과 영상 작품이 눈길을 끈다. 김자이 작가와 아낭 샵토도는 루앙매스56 레지던시에서 인연을 맺고 ‘가족의 레시피’를 매개로 한 공동 작업을 선보인다. 어머니의 김치 레시피가 등장하는 영상은 한 끼의 음식 안에 깃든 기억과 관계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시 공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한다.

이세현 작가는 전일빌딩 9층의 리모델링 전 내부부를 담은 2017년 사진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한다. 대표 연작 ‘Boundary’와 ‘에피소드’ 시리즈를 함께 선보이며, 역사적 사건의 잔흔과 그 안에 남은 이야기들을 시각화했다.

이에 호응하듯, 인도네시아 작가 아페 누르 역시 광주의 장소성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풀어냈다. 그는 한강의 소설에 등장하는 광주의 장소들을 걸으며, 그 기억 위에 자신의 경험을 포개어 작품으로 전환했다. 국군병원 등지에

서 채취한 흙을 몰감처럼 사용하거나 나무판에 총탄을 연상시키는 구멍을 뚫어 빛을 투사하는 설치작업은 광주의 오월을 떠올리게 하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미로센터에서는 작가들의 또 다른 작업들이 이어진다. 김자이·아낭 샵토도의 ‘모든 가족의 음식마다 그 집만의 맛과 삶이 담겨 있다’는 주제의 앞치마 작업에는 한국의 김치와 인도네시아 ‘Javanese noodles’이 재료와 음식으로 표현돼 문화적 공존을 상징한다.

강미미 작가는 자연과 생태에 주목한 설치작업을 소개한다. 나무 밑동을 엮어 만든 대형 삼



김자이·아낭 샵토도작 ‘모든 가족의 음식마다 그 집만의 맛과 삶이 담겨 있다’



아페 누르의 설치 작업

각형 구조물 등 버려진 자연의 잔해를 다시 조합한 설치, 여러 생명체가 융합된 듯한 판화 작품 등은 인간에 의해 버려지고 남겨진 존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는 “서로 다른 예술

가들이 한 향로에서 마주한 시선과 감정을 담아낸 전시”라며 “광주의 땅과 사람, 그리고 시간을 매개로 한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예술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강미미작 ‘네 개의 눈, 한 개의 몸’

ACC재단, 독서력 높여줄 선물 세트 출시

‘카인더엔젤트리’ 협업 상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카인더엔젤트리(Kinder & G

‘카인더엔젤트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10여 개국의 품격 있고 실용적인 상품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하는 감성 편집 매장이다. 고유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생활용품과 함께 친환경 포장과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 구성으로 폭넓은 연령층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협업 상품은 가을 정취에 맞춰 ‘독서’를 주제로 개발한 선물세트 ‘청목삼우(靑墨三友)’로, 100세트 한정으로 선보인다.

‘청목삼우’는 ‘문방사우’에서 착안한 표현으로, 읽고 쓰는 행위와 관련한 ‘푸른 먹빛의 세 친구’를 의미한다.

전당의 대표 색상을 반영한 책갈피, 문진, 말티 펜 등 세 가지 소품을 통해 문화의 깊이와 여운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선물 세트



에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카드도 함께 구성해 특별함을 더했다.

구성품인 ‘책갈피’는 전당의 건축요소 등을 반영한 티백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 삽화 스튜디오인 ‘0.1 (영점일)’이 제작했다. ‘문진’은 전당의 대표색인 푸른빛 재활용 유리를 소재로 일본 디자인 브랜드 ‘하이라이드(High tide)’가 수공예로 만든 제품이다. ‘말티 펜’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탈리아산 고급형 다색 펜으로, 독서 중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몰입형 무대로 펼쳐지는 현대판 ‘수궁가’

창작국악그룹아이리아, 오늘 북구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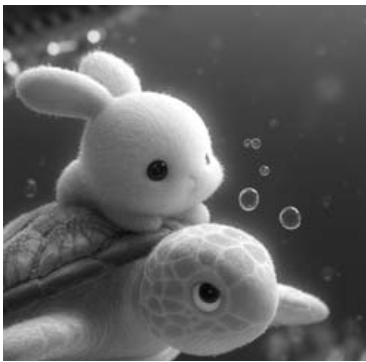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몰입형 공연이 펼쳐진다.

창작국악그룹 아이리아의 제3회 정기연주회 이머시브 판소리극 ‘이상한 나라의 별주부’가 6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전통음악의 서사적 힘과 소리판의 열린 구조를 현대 연극의 기법으로 풀어내며, 관객이 공연의 주체로 참여하는 이머시브 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관객은 무대 밖에서 이야기를 바라보는 대신 용궁의 시민이 돼 배우들과 호흡하고 선택하며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야기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육지로 올라온 자라 ‘별주부’와 그를 괴롭히는 토끼 ‘강총이’의 갈등으로 시작된다.

느리다는 이유로 파돌림당하는 별주부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배척과 불신 문제를 은유하며, 두 인물이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바디 스



왁(body swap)’ 구조를 통해 공감과 배려, 우정과 신뢰의 가치를 전한다.

아이리아는 광주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2005년 창단 이후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악 무대를 선보이며 전통예술의 확장된 미래를 제시한다.

공연은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